

歷史教育科의 실상과 당면과제

趙 承 來
(清州大 歷史教育科)

1. 教育課程의 制度的 문제점

歷史教育科의 학과목표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훌륭한 역사교사를 배출하는 것이다. 훌륭한 歷史敎師란 전문적인 역사지식을 탐구하여 역사에 대한 해박한 知識과 확고한 意識을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方法을 이론적·경험적으로 터득하고 있는 교사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우리나라 역사교육과의 敎育課程은 이러한 학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짜여져 있는 것일까? 아마도 여기에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역사교육과 교수는 거의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가장 근본적·제도적인 문제로서 현행 140학점제의 일률적 적용을 들 수 있다. 물론 국립 사범대학에서는 150학점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私立 師範大學은 예외 없이 기타 단과대학과 똑같이 140학점제로 운용되고 있다. 이는 師範大學의 特殊性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그 존재이유를 의심하는 대학사회의 일반적인 풍토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범대학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20학점 내의 敎育學과 敎職 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되

기 때문에 자연히 그만큼의 제한을 전공과목에서 감수해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학생들은 인문대학 사학과 학생들보다 다양한 전공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이는 오늘날 學問中心的 敎育課程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르치는 학과목의 전문지식 探究 成就度가 열악할 때 敎師의 전문인으로서의 위치는 그만큼 약화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교육과의 경우 한국사·동양사·서양사의 기본적인 時代史로서 고대사·중세사·근대사·현대사와, 강독·특강·연습으로 교육과정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좀더 細分化된 시대사·사상사·사회경제사 등 특수 分野史를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뿐만 아니라 그나마 개설되어 있는 강독과 연습 과목들도 한국사·동양사·서양사별로 한 강좌뿐이어서 그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專門人으로서 역사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역량을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전문적 지식 탐구의 열약성과 아울러 效果的 敎育方法의 이론적 탐구와 경험적 연마의 결여를 지적할 수 있다. 역사교육과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20학점 내외의 교육학과 교

적과목 가운데 역사교육과 직접 관련있는 과목은 4 학점 안팎인데, 일반적으로 歷史教育論 2 학점과 歷史教材研究 혹은 指導法 2 학점으로 되어 있다. 이는 역사교사 양성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학점이다. 역사교육과에서 이렇듯 歷史教育에 관계되는 과목이 흔대받는 이유는 바로 歷史教育學을 전공으로 하는 教授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그 수가 결코 5명을 넘지 않는다. 이는 교수나 학생 다같이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교육과가 있으면서 이에 대한 외국의 전문적 학술잡지(예를 들어 *The History Teacher* 혹은 *Teaching History* 등)를 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학교는 놀랍게도 1 개교뿐이라는 사실이 이를 여실히 입증한다.

이와 같은 현행 역사교육과 教育課程의 문제점은 역사교육에 대한 理論的 研究가 매우 일천하고 빈약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國民教育으로서 역사교육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비교사들에게 어떤 과목들을 어떻게 組織하여 역사교육과에서 가르쳐야 할 것인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역사의 教育的 價値와 目標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역사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方法은 어떤 것들인가? 歷史學의 특수한 성격과 教育學의 일반적 이론들은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에 대한 理論的 檢討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내부에서부터 선행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문제점이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본다.

2. 외국의 研究動向과

국내 歷史教育科의 현실

앞서 지적하였듯이 歷史教育論을 전공으로 하는 教授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실정이고 보면, 역사교육의 이론적 연구가 매우 활발한 英國과 美國의 연구동향을 알아보고 거기에 우리의 역사교육과 교육현실을 비추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1) 英國의 '新歷史'

오늘날 영국만큼 역사교육의 理論을 발전시킨 나라도 드물다. 특히 런던대학의 教育研究所를 중심으로 한 역사교육학자들의 활동은 눈부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들이 자기네 이론을 '新歷史'(new history)라고 부른다는 점이다. 즉, 전통적 역사교육론과는 다른 새로운 이론이라는 것이다. 傳統的 歷史教育論이 학생들로 하여금 教師와 教材를 통해 역사적 지식을 단순히 전해 들고 암기하도록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라면, '신역사'라는 새로운 역사교육론은 교사로부터 역사과목 고유의 方法論과 基本概念단을 배운 뒤, 이를 바탕으로 學生 스스로가 역사를 탐구하도록 하여 역사적 지식을 터득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역사시간에 배워야 할 것은 역사의 내용이 아니라 그 연구방법과 기본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신역사'의 맹아는 이미 20세기 초부터 나타난다. M.W. Keatinge가 중등학교 역사교육에 있어서 근대 역사학의 科學的 方法論과 이에 입각한 史料 탐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래, 역사교사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歷史的 事實을 아는가"의 문제를 강조하려는 주문은 계속되었다. 1927년 역사학회의 한 팸플릿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연마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事實들을 수집, 조사, 상호관련시키는 능력, 그리고 그 결과를 명석하게 表現하는 능력, 偏見과 불합리한 先入見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 論理的으로 생각하고 주장을 펼 수 있는 능력, 이용 가능한 증거에 입각해 독립적 判斷을 내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늘 새로운 證據들에 의해서 자신이 내린 결론은 수정되고 부인될 수도 있는 하나의 假說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는 능력", 즉 역사교육은 歷史的 探究와 思考를 위한 知的 訓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찍이 1911년 런던시 교육위원회가 피낸 초등학교 역사교육에 대한 토의보고서가 初等敎員養成大學에 권고한 내용도 마찬가지이다. 예비교원은 역사지식만 알아 둘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확정하는 방법, 역사적 증거의 본질과 의미, 역사적 가치에 대한 이해

와 역사에 대한 解析能力, 역사적 탐구의 결과에 대한 表現記述能力 등도 익혀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예비교원은 歷史의 內容만 많이 배워둘 것이 아니라 歷史 探究와 解析의 方法을 익혀두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이 1970 년대에 들어와 교육학자 Paul Hirst의 '知識의 形態論'과 접목되어 본격적인 '新歷史'가 등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모든 학과교육은 다음 4가지를 가르쳐야 한다. 첫째로 그 과목의 독특한 概念들, 둘째로 개념들을 연관시켜 說明하는 方法, 셋째로 證據로 입증하며 命題를 수립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하는 方法, 넷째로 探究를 수행하며 假說을 세우고 陳述해 나가는 方法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역사에서는 概念과 方法論을 우선시하는 교육이 결실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학자인 P.J. Rogers와 P.J. Lee에 의하면, 역사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歷史研究의 節次에 대한 것이지 취합된 역사지식을 마스터하는 것이 아니다. 어린 학생에게 낯설고 잡다한 歷史知識을 배우도록 강요하는 것보다 그것이 만들어지는 節次를 배우게 하여 학생수준에 맞는 역사를 스스로 探究케 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역사교육이라는 것이다. 학생이 자기 수준에 맞는 史料를 가지고 직접 자기 수준에서 역사를 탐구해 볼 때, 역사의 교육적 가치는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훈련을 통해 역사교육도 학생의 知的 成熟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美國의 '探究로서의 歷史'

미국에서는 1960 년대에 들어와 J.S. Brunner의 學習의 構造化論이 역사교육에 접목되면서 '探究로서의 歷史'(history as inquiry)라는 말이 역사교육학계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 또한 역사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역사의 내용이 아니라 探究 樣式과 解析 方法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의 맹아는 미국에서도 일찍이 20세기 초반과 중반의 역사교수들의 주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학생의 科學的 思考와 判斷力을 키워주기 위하여 어떻게 歷史的 事實이 발견되고 論理的으로 構成되는지를 가르치라는 주장과, 역사교육이 단순히 事實에 대한 暗記教育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학생에게 역사 연구에 필요한 批判的 思考, 歷史的 理解, 分析的 方法 등의 과정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教育學의 理論과 접목되어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이후 피츠버그의 카네기멜론대학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학자인 Edwin Fenton의 주장에 따르면 학과목의 내용은 그 學科目的 構造, 重要概念, 方法論으로부터 추출되어야 하는 바, 역사 과목에서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들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들이 그러한 事實들을 確定하고 說明할 수 있었던 방법, 즉 歷史의 探究樣式을 가르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 스스로가 歷史家의 探究樣式을 배워 주어진 資料, 즉 史料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역사를 써 볼 때 역사교육의 목표는 달성된다는 것이다. 즉, 歷史家들이 하는 것처럼 知識을 組織하는 데 학생을 참여시키는 것이 歷史教育의 목표라는 것이다.

3) 國內 歷史教育科의 現狀

이러한 역사교육 이론은 歷史教育論의 교과서에 이미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수업에 이것이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歷史教育學 전공교수의 절대적 부족으로 그 이론이 제대로 소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학생들에게 제대로 흡수·소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사범대학 역사교육과에서 개설되는 專攻科目으로는 이러한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사연구의 기본적인 節次와 樣式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으려니와, 부끄럽게도 基本的 史料를 分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좀처럼 어려운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실령 이러한 이론에 흥미를 가지고 의무적으로 이를 교육현장에 적용시켜 보려는 의욕을 가진 학생도 너무나 빈약한 教育實習의 條件 앞에 주저앉고 마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入試 위주의 교육현실에서 교육실습생에게는 거의 가르칠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理論의 적용은커녕 역사는 타과목 교사들도 능히 가르칠 수 있는 암기과목의 대명사가 되었다.

3. 歷史學의 발전과 歷史敎育科의 실태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人間社會의 급속한 변화는 모든 학문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역사학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랑케史學의 극복이라고 할 수 있다. 客觀的 事實의 確定이 가능하다는 소박한 믿음과 歷史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政治的 生의 總體性으로서의 民族國家라는 주장이 20세기에 들어 오면서 배척당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事實의 確定이라는 것도 하나의 解析作業에 불과한 것이라는 믿음과, 歷史에서 중요한 것은 위대한 인물들의 政治的·軍事的 權力的 행사라기보다는 일반민중의 大衆的 世界觀과 삶의 條件들이라는 주장이 널리 확산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史學概論을 통해 대부분의 학생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역사교육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아직도 역사교육의 현실에서 歷史는 곧 民族國家의 위대한 서사시요, 영웅담이다. 그에 대한 다양한 解析은 곧 신성모독과 같은 것으로 매도된다. 世宗大王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개일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불문율이 아닌가. 우리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왜 이렇듯 歷史學의 일반적 추세가 歷史敎育에 반영되지 않는 것일까. 그 첫번째 이유는 현행 國定敎科書制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현행 사범대학 역사교육과의 敎育課程에도 문제는 있다. 역사교육과 학생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세미나 혹은 연습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교과서가 새로운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敎材分析研究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나마 교수에게 배운 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적 이론이요, 현실은 현실이라는 學問的 敗北意識에 쉽게 빠져드는가 하면, 반대로 극단적 사고와 행동에 경도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극적 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이다. 일단 敎師가 된 후에는 대부분 학회활동이나 학문적 관심이 저조해지는 것을 보면 여간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歷史學의 발전과 분리된 歷史敎育의 책임이 역사교육과에도 있는 것이다.

4. 當面課題

1) 160 학점제의 實施

歷史敎育科의 特殊性을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는 160 학점제의 실시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문과대학 史學科 수준의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거기에 20 학점 정도의 교육학과 교과교육론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學問中心的 敎育課程이 중요시되는 경향을 감안할 때 이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歷史에 대해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알아야만 훌륭한 歷史敎師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160 학점제의 실시를 위해서는 사범대학간의 공동대처가 필요하다. 국립대학에서는 이미 150 학점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립대학에서는 재경난을 이유로 아직도 140 학점제가 실시되고 있는 불균형은 國家次元의 制度的 改善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2) 專攻敎育의 深化

앞서 보았듯이 오늘날 신진적 역사교육은 단순히 역사지식을 학생에게 전달해 주는 차원을 넘어 학생 스스로가 歷史知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교사인 역사교육과 학생이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연마해야 한다. 우선 기본적인 史料에 대한 批判과 分析方法을 철저히 익히야 할 것이다. 또한 균형잡힌 시각에서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精神的 訓練도 쌓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증거에 입각해 과감히 자기 나름대로 解析할 수 있는 能力도 연마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기초적인 강독과목을 韓國史·東洋史·西洋史를 분야별로 반드시 설강하고, 이를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여 기본적인 史料

에 접근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 다음 반드시 演習 혹은 세미나 과목을 韓國史·東洋史·西洋史의 시대사별로 실강하여 그 중 몇 개를 필수로 선택케 해야 한다. 이를 통해 歷史家의 주장이 무엇을 근거로 하여 펼쳐지는가를 배우게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세분화된 시대사를 실강하여 전문적 역사지식의 이해를 도와야 할 것이다.

3) 教科教育論 교육의 深化

현행 역사교육과의 教科教育은 일부 국립대학을 제외하고는 歷史教育論 2학점과 教材研究 및 指導法 2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고 아니할 수 없다. 專門人으로서의 역사교사를 양성한다는 역사교육과가 그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한 부분을 너무나 홀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앞서 지적하였듯이 歷史教育을 전공으로 하는 교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야의 專攻教授를 양성해 내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차선책으로는 현재 이 분야의 전공은 아니지만, 대학에서 다년간 이 분야를 강의하고 있는 教授에 대한 장·단기 해외연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대학 바깥의 연구원 초빙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역사교육과의 教科教育이 충실히 될 수 있다면, 우선 학점을 늘려야 한다. 先進的理論을 학생에게 충실히 소개하고 그에 입각해 實習해 봄으로써 현실 적용능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 이는 기존 교사에 대한 再教育을 통해서도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國定教科書制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教材分析도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교사로서의 主體性 確立에 기여하는 교과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歷史關聯學會의 支援活動

역사교육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를 보면, 일찍이 20세기 초부터 歷史學會가 중심이 되어 歷史教育의 問題點을 진

단하고 새로운 방향을 摸索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7인 위원회'가 구성되어 역사교육의 지침을 만들었으며, 최근에는 브리틀리위원회가 이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1970년대에는 미국사학회와 역사학회 공동으로 '學校教育에서 歷史科目의 地位에 대한 特別調査委員會'를 조직하여 역사교육의 위기를 진단하고 역사교육의 正當性을 확고시켰다는 것은 유명한 일이다. 지금도 미국역사학회가 역사교사들을 위한 지도용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는 사실은 관련학회의 역사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영국역사학회는 일찍이 1968년 『위기에 처한 역사교육』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1971년에는 역사의 교육적 목표에 대한 교사용 지침서를 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關聯學會의 지원 활동은 歷史教育科 교수와 학생에게 큰 힘이 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歷史教育學會에서 현행 교과서가 학문적 성과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분석한 기획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5. 맺는 말

마지막으로 필자의 個人的 經驗을 이야기함으로써 글을 맺을까 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곳은 교육도시로 이름난 곳이다. 필자가 한 공립 중학교에 교생실습 지도를 나가 역사담당 교사와 대화를 나누고 돌아설 때, 그는 자신이 사실은 기술교사이나 국사를 가르치고 있노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였다. 돌아와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자기 고향에서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라고 한다. 역사는 암기과목이니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교육과 교수인 필자에게는 매우 충격이었다. 역사교육을 전공하지 않아도 역사를 가르칠 수 있다면, 이는 바로 지금까지 歷史教育科 教育의 正體性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닌가. ▣